



대한민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22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대한민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에서 김영록 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신안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

세계 2위·3만 일자리...20조·원전 3기 발전량

“해상풍력 획기적 전기...에너지 기본소득 큰 걸음”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집적화단지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고(寶庫)인 신안에 조성된다.

만자 20조원이 투입돼 대형 원전 3기와 맞먹는 규모로, 에너지 기본 소득의 큰 걸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공고했다.

전남도는 2033년까지 자온도와 압태도 등 신안 해역에 해상풍력 1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 예상 발전량은 대형 원전 3기와 맞먹는 3.2GW(기가와트)에 달할 전망이다.

3.2GW는 광주와 전남 모든 가정과 전북 일부 가정에 1년 간, 서울과 인천지역 전체 가정에 5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용량과 맞먹는다.

아시아·태평양권역에서는 최대 규모고, 세계적으로도 3.6GW 규모인 영국 북해 도거 뱅크(Dogger Bank)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한국전력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해상풍력 30GW 보급,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기자재 연관산업 및 RE100 수요기업 유치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다는 게 전남도의 계획이다.

도는 해상풍력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발전비용은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어민을 포함하는 ‘민관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해 송·변전설비 구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REC를 연간 2450억 원 가량 확보해 주민 이익공유와 에너지 기본 소득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공급망 우대 방안 등을 통해 하부구조물, 타워, 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를 힘쓰고,

목포신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만들어 조선업과 함께 전남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3만 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비전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한민국 해상풍력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이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여는 쾌거”라고 밝혔다.

국내 풍력 업계와 전남 대불산단 등 산업현장도 환영 분위기다. 지난 3월 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이어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내 해상풍력 산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풍력발전량은 644GWh(19.0%)로 강원(961GWh), 경북(934GWh)에 이어 국내 3위다.

/김 호 기자

대선주자 잇단 호남행...지역발전 공약 변수

김경수 22일 양동시장 상인 · 당원과 만남

이재명 24 · 25일 광주 · 전남북 정책간담회

김동연 내일 호남 방문해 공약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잇따라 지역을 방문해 지지세 확장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호남이 민주당의 본산인 만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할 지역발전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당원과 간담회를 갖고 낮 12시30분께 광주의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민주당 광주시장에서 광주 · 전남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김수현 공보단장도 이날부터 이들 간 광주를 방문해 언론사 간부들과 면담을 한다.

이 후보는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을 방문해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전북 김제시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 ‘건강한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 5 · 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전일빌딩 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이라는 주제로 당원과 만난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의 전남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을 주제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한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수도권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오는 24일 호남을 찾을 전망이다.

호남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23일부터 26일까지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온

라인투표를 진행한다.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방문에 지역소멸을 막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호남에 집중돼 있고,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이후 격전지인 서울 ·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이 호남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순환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모델시티-더 브레인(The BRAIN) 광주,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5 · 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시대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공약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전남도의 최우선 공약 과제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여수산단과 광양만권을 되살릴 석유화학 ·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20건이다.

광주 공공화 이전은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채택됐으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광주 · 전남도 · 전북도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민주당 중앙당에 공동으로 요청했다.

/김도기 기자

전국생활체전 내일 개막	2면
군 경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3면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4면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